

Robert Vannoy, OT 역사, 강의 2

양식 비평 - Gerhard von Rad

검토

우리는 게르하르트 폰 라트(Gerhard von Rad)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구약성서에 대한 벨하우젠의 소스 비평적 접근 방식과 그것이 궁켈의 형식 비평적 접근 방식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약하고 형식 비평 방법을 개발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한 세 번째 인물은 게르하르트 폰 라트(Gerhard von Rad)였습니다. 이제 나는 von Rad가 세 가지 명제를 사용하여 전개한 다소 복잡한 이론을 요약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수업시간에 처음 두 개를 드렸는데, 오늘 오후에 세 번째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다시 잡기 위해 처음 두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신앙의 진술”은 육사학 전체를 뒷받침합니다—Credo Deut 26:5ff2.

육교는 Credo3의 지침에 따라 현재의 형태로 변경된 다양한 자료의 집합체입니다. 육교 전체는 Gattung/sitz im leben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첫째, von Rad는 “신념의 진술”이 Hexateuch 전체를 뒷받침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Heils geschichte* 또는 *구원 역사*의 주요 요소가 신명기 26장 5절 이하의 Credo에 요약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육교는 신조(Cred

o)의 지도 아래 현재의 형태로 변화된 다양한 자료들의 집합체이다. 나는 이 두 가지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그의 저작 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셋째, 궁켈의 연구 측면에서 육술은 전체적으로 가통(*gattung*) 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는 그것들의 형태를 비판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 진술로 대표되는 초기 단계의 좌정 (*sitz im leben*)을 인식할 수 있다. 그 진술에서 von Rad는 Hermann Gunkel의 *gattung* 또는 문학 유형과 각각의 특정 문학 유형이나 장르를 생성하는 상황 유형을 분리하는 *Sitz im leben* 이라는 용어로 시작한 전통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von Rad는 Hexateuch 전체, 즉 전체 자료를 제출하여 비평적 검토를 형성 하고 전체를 하나의 가통 으로 간주 하고 초기 단계에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A. 세 번째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세요.

이제, 그의 육교 문제 페이지 2와 3 을 읽으면서 세 번째 요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건물에 대한 하나의 기본 아이디어의 복잡한 정교화”라고 말합니다. 그는 창조에서 정복까지 이 물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교,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이 거대한 건물에 하나의 기본 아이디어를 복잡하게 정교하게 구현하는 것은 최초의 에세이도 아니고 고전적인 성숙도에 비례하여 저절로 성장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능한 것과 읽을 수 있는 것의 궁극적인 한계에 눌려진

것입니다. 분명 초기 개발 단계를 거쳤을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육교는 초기 단계에서 구성의 상황이나 상황, 그리고 이후의 전개를 초기 단계에서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가통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실제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크게 확장된 형태에 이르렀습니다.”

비. 신명기 26:5-9의 신경과 같은 구절에 대한 믿음의 진술 이제 폰 라드가 활용하는 전체 구조와 접근 방식에 대해 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그는 비판적 방법론의 형태를 가지고 헤르만 군켈(Hermann Gunkel)의 노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식으로 Gunkel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형식 비평에서 군켈에 대해 이야기하고 스토리 단위를 분리한 다음 그것들에 라벨을 붙이려고 했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문학적 유형이나 다양한 유형의 라벨을 사용한 가통. von Rad와 함께 그는 개별 스토리 단위에서 Hexateuch의 전체 구조에 대한 자신의 형식 비판적 조사를 지시합니다. 개별 이야기 대신 그는 Hexateuch의 전체 구조를 살펴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Hexateuch 뒤에 있는 이러한 믿음의 진술, 즉 모든 이야기 단위의 자료 집합을 하나로 묶는 믿음의 진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신명기 26:5-9의 Credo와 같은 구절에서 그러한 믿음의

진술을 찾습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에는 첫 열매를 드리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올 때, 수확한 곡식을 가져와서 첫 열매를 여호와께 바쳐야 합니다. 신명기 26장 4절에 보면, “제사장은 너희 손에서 광주리를 받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요. 그리고 나서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포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은 5절부터 9절까지 나열되어 있으며, 이는 육교를 통한 역사의 흐름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그가 하게 될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더니 소수의 민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 거하며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나라를 이루었느니라.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히며 우리에게 심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이에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난과 수고와 학대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두려움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땅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정복 기간까지 그의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이력서는 전체 기간에 걸친 역사의 흐름을 요약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그러한 믿음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Hexateuch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heils geschichte* 또는 구원 역사 뒤에는 신명기 26장에서 볼 수 있듯이 이 Credo의 지침에 따라 현재 형태로 형성된 다양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원하는 것은 Hexateuch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 문학적 유형, 상황, 제의적 환경과 고백적 환경에서 그가 발견한 것. Credo는 결국 모든 것을 하나로 묶습니다.

씨. JEDP 및 Hexateuch의 최종 양식과의 관계 *학생 질문: 그들은 이제 JEDP와 문서 중 일부를 폐기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신명기 26장 외에도 구약성서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이력서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2-13은 자주 호소되는 또 다른 구절입니다. 여호수아 24:2-13; 나는 그것을 읽는 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유사합니다.

나는 그가 JEDP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는 다른 수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려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이러한 방법의 개발에서 찾아낸 순서를 방법론적으로 따를 것입니다. 즉, 다양한 JEDP 문서에 매핑된 Wellhausen의 오경 소스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거기에 Gunke1의 형식 비평 방법을 사용하여 문서를 작은 이야기 단위로 나누고

문서를 관통하여 구전 전통의 뿌리에서 문서 자료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알아 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그 모든 것의 타당성을 고려할 때 von Rad와 같은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앞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입니다. 이제 최종 형태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최종 형태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아브라함에서 이집트, 시내산, 그리고 정복에 이르기까지 사물의 이동을 구조화한 특정 고백문에서 찾을 수 있는 이런 종류의 골격 개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체적인 구조를 낳은 것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백-제의적 암송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이상을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JEDP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가정합니다.

von Rad에게는 최종 편집자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편집자님, 우리는 편집 비평을 볼 때 이것에 대해 더 나아갈 것입니다. 편집자는 Wellhausen의 JEDP 소스를 강조하면서 일종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편집자는 나중에 더 중요해지며 소스를 함께 컴파일하는 데 훨씬 더 눈에 띄는 위치를 차지합니다 .

디. Historie & Heilsgeschichte von Rad에 대해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폰 라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그가 *역사* 라고 부르는 것 중 하나는 과학적인 역사 편찬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의미에서 역사를 다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말할 때 그는 *역사*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 그러나 von Rad의 견해에 따르면 구약성서의 자료에서 *역사 에 관한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구약의 각 부분이 우리에게 *역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인 heilsgeschichte*를 준다고 말합니다 . von Rad에 따르면 *Heilsgeschichte*는 “*고백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생각한 방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Heilsgeschichte* 는 이스라엘의 신앙에 의해 형성되고 변형된 역사입니다. von Rad에 따르면 그것은 그녀가 믿고 구체화한 것이지 반드시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분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폰 라드의 관점에서 볼 때, 현대 역사가들이 보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가 구약성서에서 발견하는 관점인 이스라엘의 신앙에 의해 형성된 이스라엘의 고백적 역사는 매우 다른 두 가지입니다.

그러다가 흥미로운 반전을 보게 됩니다. von Rad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역사*, 즉 실제로 일어난 일 에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 그가 관심을 두는 것은 이스라엘 신앙의 건설이었던 역사 , *하일스게쉬히테(heilsgeschichte)* 이다. 그의 구약신학을 다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이것은 그의 *구약신학* 제1권 106페이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점과 후속편에서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생각할 때 물론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렇게 간주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조상들의 부르심, 애굽 땅에서의 구원, 가나안 땅의 수여 등이요, 이스라엘의 신앙과 관련이 없는 현대적이고 비판적인 역사적 학문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는 어려운 역사적 문제를 제기한다. 지난 150년 동안 비판적인 역사학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한 인상적이고 완전한 그림을 수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구약성서에서 도출하고 받아들인 이스라엘 역사의 옛 그림은 조금씩 파괴되었다. 이 과정에서는 되돌아갈 수도 없고,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비판적인 역사 학자들은 이스라엘 전체가 시내산에 있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간주합니다. 아니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정복을 이루고 집단이나 집단으로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전통에 나오는 모세의 리더십은 신명기와 사사기를 묘사하는 사사기만큼 '비역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일은 실제로 구약성서의 자료에 설명된 방식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면, 이스라엘과 함께한 야훼의 구원 역사에 대한 구약성서의 그림 의 극도로 복잡한 기원을 다룬 것은 이전에 나온 육학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연구라고 말한다. 학자들은 심지어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에 이것은 놀라운 진술입니다.) 그러나 그는 “학자들은 이스라엘 자신이 그린 우리 역사의 그림에 대해 그 자체의 과학적 입장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가 과학적인 입장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heilsgeschichte* 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의 의미나 실제로 일어난 일의 의미에서의 역사가 아니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스라엘 자신이 그린 역사의 그림에 그 자체로 과학적 입지를 허용하고 그것을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체로 흥미로운 것, 그것은 개략적으로 설명된 방식으로 우리의 신학적 평가의 중심 주제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자형. 믿음으로 세워진 구원의 역사와 그에 따라 인격적으로 고백적인

구원의 역사 그 페이지 아래의 107페이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격.” 이것이 그의 논문의 핵심이다: “신앙으로 그려진 역사는 그 성격상 고백적이다.” 이스라엘의 후기 역사를 포로기까지 묘사하는 신명기의 역사(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왕기)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이 두 가지 그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현대 비평학문의 그것이 바로 실제 *역사* 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의 신앙이 건설한 것입니다. 그는 둘 중 하나의 존재 권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히스토리*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 에 대한 비판적 그림을 구성합니다. 물론 그에게 있어서 모세의 정복의 그림은 애굽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활동은 고백적으로 개인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 *Heilsgeschichte*. 그는 “역사적 조사는 비판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목적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케리그마적 그림은 신학적 최대치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 두 가지 견해가 매우 다르다는 사실은 오늘날 성경학문에 부과되는 가장 심각한 부담 중 하나입니다.” 그는 그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부담”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에 이 두 가지 짐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 - 그러나 어느 쪽의 권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는 역사적이고 다른 하나는 비역사적이라는 그림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서 얻고자 하는 것은 비록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heilsgeschichte*가 어떻게 역사적 그 자체인지에 대한 정당성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프. Heilsgeschichte가 어떻게 건설되었는지는

그의 *구약 신학 제1권의 106-10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이 세 가지 요점을 요약하는 이론을 어떻게 작동시켰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래되고 분리된 부족 또는 지역 전통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전에는 통화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던 것이 육학이나 신명기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아무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원래의 맥락에서 개별 스토리 단위를 가져와서 이동하는 더 큰 구성에서 이러한 자료 블록 중 하나와 연결됩니다. 그는 그것이 Credo에 의해 모아진 다양한 자료의 집합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화폐 사용이 상당히 제한되었던 수많은 오래되고 분리된 부족 이야기가 육교나 신명기의 역사에 통합되었지만 이제는 모두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리된 오래된 전통에는 대부분의 경우 원래 의미와는 다른 참조와 해석이 주어졌습니다. 전통을 역사 속으로 통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결코 자명하지 않았는데, 그 모든 것, 심지어 작은 부족의 가장 모호하고 보잘것없는 것조차도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었고, 따라서 이스라엘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전통적인 구성 요소에 구현되어 있음을 보고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그림에 기록된 경험 자체를 포함하고 흡수하고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침내 우리는 이스라엘의 신학적 사고가 그 자료와 사상을 존중하는 가운데 추구했던 하나의 통일된 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한 단위로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한 단위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그만 두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계속할 수 있지만 이것이 다시 그의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는 “구약성서의 역사 제시가 그토록 많은 것을 말해 주는 이 이스라엘이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으로 건설된 역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합니다.

g. Vannoy의 답변 이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von Rad는 구원의 역사(*heilsgeschichte*)가 이스라엘의 신앙 구조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 반대라고 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는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거꾸로 놓으세요. 이스라엘의 믿음은 구속사가 펼쳐지는 가운데 자라나고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사물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은 구속사가 펼쳐지는 가운데 성장하고 양육되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신앙과 역사의 관계입니다.

시간. 출애굽기 14장의 예

이에 대한 예로서 출애굽기 14장을 살펴보자.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와 홍해에 이르고 애굽이 추격하러 나가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이켜 바다와 므딕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땅에서 방황하고 있느니라 광야가 그들을 가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그들을 추격하리라. 그러면 내가 바로와 그의 온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어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장 전체를 읽지는 않겠지만, 그 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이 추격할 때 애굽인들을 멸망시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가로질러
 가는데 좌우에 물벽이 있더라” 고 했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집트 사람들이
 바닷가에 죽어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31절을 보십시오. “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므로 당신이
 보는 것은 말과 행동 모두를 통한 하나님의 개입이며, 이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주신
 것에 반응합니다. 그분이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은 응답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많은
 가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과 행동, 말과 역사 개입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이스라엘의 신앙에 앞서며 기초를 구성합니다. 말과
 행동을 통한 신성한 계시는 신앙의 기초에 앞서며 이를 구성합니다. 즉,
 믿음이 성경적 역사의 사건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von Rad의 반응은
 상황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von Rad는 이 역사가 이스라엘 신앙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이 매우 분명하게 뒷받침하는 것은 믿음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행위인 신성한 계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von Rad의 작업과 같은 작업에서는 여기서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가 관심을 갖는 것은 *구원*의 역사이고, 그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에 대한 신학적 가르침이므로, 그가 이것을 설명할 때, 그 밑에 있는 모든 이론을 벗겨낼 수 있다면, 그가 여러 번 말하는 것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이나 내가 말할 것에서. 그는 많은 사건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러한 사건의 신학적 중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통찰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원의 역사인 이 *heilsgeschichte*가 실제로 일어난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기초가 되는 기초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제시된 아이디어와 실존적 동일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역사상 실제로 일어난 일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가 해결하지 못한 일을 당신이 거기까지 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역사에 대한 이 두 가지 관점이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에 오늘날 구약학도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면 그것들이 그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우리 자신을 화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내 생각에 그는 이 *heilsgeschichte*가 기만적인 것, 사기적인 것, 또는 그와 유사한 어떤 것이라고 매우 경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그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표현이고 긍정적인 것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스스로를 보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인구의 한 요소, 한 부족의 전통을 취하고 그 하나의 경험을 이스라엘 전체에 적용합니다 .

그런 다음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중요한 것이 되고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신앙에 뿌리를 둔 것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이 전체 구조에 통합합니다. 그는 그것이 사기적인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것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을 잘못 표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을 확실히 왜곡합니다.

나. Heilsgeschichte와 성경적 신앙

당신의 참고문헌에는 게르하르트 하젤(Gerhard Hasel)이 쓴 *구약 신학: 현재 논쟁의 기본 문제*, 제3판 항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82년, 100면. 100면에서 게르하르트 하젤은 프란스 헤세라는 독일 학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헤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약 시대에 일어난 일로부터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일어났다고 고백한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에 기초해야 합니다.” 좋은 말씀이군요. 우리의 믿음은 일어났어야만 했던 일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일어났다고 고백한 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프란스 헤세(Frans Hesse)가 그 말을 한 것은 흥미롭습니다. 아주 좋은

진술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헤세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종류의 다큐멘터리 자료 비평을 옹호하는 사람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그는 그 원칙을 매우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분리하는 것은 성경적 신앙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약의 통일된 진리 개념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믿음은 실제 역사의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을 때에만 정당성과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기본 원칙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반성하고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 개념에 대한 온갖 종류의 공격이 있고,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매우 빨리 침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양보적 복음주의 2. “양보적 복음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Wellhausen, Gunkel, von Rad 및 그들의 방법론에 따라 생산된 모든 자료에 대해 논의 해온 이러한 견해는 도전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앞서 벨하우젠 시절 마지막 수업 시간에 언급했듯이 윌리엄 헨리 그린(William Henry Green)은 벨하우젠의 이론을 반박했습니다. 궁켈과 폰 라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구약에 와서 성경적 무오성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난 10-15년 동안 이러한 방법론 중 일부와 관련하여 복음주의 집단에서 더욱 양보적인 입장을 향해 발전하는 추세를 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경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한 공격과 우리가 구약의 역사적 자료에 접근하는 방법론 분야에서 양보하는 데 불필요한 양보가 여러 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요점 중 일부에 대해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부 복음주의 학자들을 보면 제가 주장하는 핵심 사상은 성경의 기본 메시지가 다음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나는 그것에 확실히 동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초점이다. 그러나 그와 관련하여 주장되는 것은 기본 목적이며 메시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 세부 사항과 관련하여 무오성을 거부하는 정도로 성경 해석 방법을 수정할 때, 즉, 구약성서의 많은 부분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고, 그 본문들이 역사적 내용이라고 표현하더라도, 성경의 중심 메시지,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텍스트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읽히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며 그들이 묘사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를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싶은 책은 성경읽기와 해석에 관한 책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읽은 내용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H. M Kuitert의 제목입니다. Kuitert는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의 신학 교수이다. 그의 책 중 다수가 영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는 GC Berkouwer의 학생이었고, 그 후 자유 대학의 신학부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이 작은 책을 썼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한가?* Kuitert는 자신을 복음주의자라고 주장하며 복음주의 자라고 주장했습니다.

14 페이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한다면, 적어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성경이 묘사하는 대로 일어났다고 가정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모든 일이 성경이 묘사하는 대로 정확하게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성경을 잘못 읽거나 적어도 피상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의 기록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본문을 조작해야 합니다. 당연히 문자 그대로 일어난 일의 대부분은 성서에서 말하는 내용이지만, 어떤 일들은 단순히 말한 대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고됩니다.” 이제 그는 그가 말하는 방식이 매우 분명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구약성서에서 모순이라고 느끼는 것들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1. 구약역사의 문제점과 해결책의 예 1. 웃시야의 장사 그 모든 것을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쉽게 대답됩니다. 이 New International Version St

udy Bible을 가지고 노트를 보고 이들 각각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성서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역대상하의 기자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지만, 열왕기상하의 기자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전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차이점을 어느 정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하 15장 7절에 따르면 웃시야 왕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혔지만, 역대하 26장 23절은 웃시야가 나병 때문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지 않고 오히려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고 말합니다. . 여기에는 몇 가지 가능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째, 역대하 26장 23절은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웃시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 가까이에 있는 왕들의 묘지에 장사되었으니 이는 사람들이 저가 문둥병에 걸렸다 하였음이라.” 열왕기하 15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언급이며 역대하 26장과 동일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웃시야의 뼈가 2차 매장지에서 옮겨졌다는 두 번째 성전 아람어 비문에서 나오며, 이는 그의 매장이 별도의 장소에 있다는 두 가지 가능한 언급을 허용합니다.

2. 솔로몬과 히람 사이에 거래된 도시들

열왕기상 9장 11절에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성읍 20개를 히람 왕에게

주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역대하 8장 2절에서는 히람이 이 성읍들을 솔로몬에게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상 어느 시점에서 솔로몬은 그 성읍들을 히람에게 주었고 나중에 히람이 그 성읍들을 돌려주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히람은 그 성읍들을 솔로몬에게 주었고 솔로몬은 그 성읍들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모순으로 본다.

3. 누가 골리앗을 죽였는가? 사무엘하 21장 19절에는 엘하난이 거인을 죽였다고 나옵니다 . 그러나 역대상 기자는 엘하난이 싸움에 가담했고 그가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서 알고 있듯이 실제 거인 학살자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하난이 다윗의 왕좌 이름인 다윗의 또 다른 명칭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혹은 골리앗이 거대한 몸집을 지닌 인물을 대표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지만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된 참조를 보면 텍스트 문제입니다.

4. Kuitert의 부적절한 결론 그러나 Kuitert는 이와 같은 삽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삽화는 우리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어떤 작가가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는지, 열왕기의 작가입니까,

아니면 역대기의 작가입니까? 아니면 둘 다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역사적 정확성에 관심이 있다면 두 작가에게서는 그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Kings가 말한 것과 정확하게, Chronicles가 말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모든 작가가 사건을 일어나는 대로 기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열왕기상과 역대기에서 모순을 야기합니다. 이는 공관복음에 나오는 신약성경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공관복음서의 진술을 조화시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사점이 있는 열왕기, 역대기, 사무엘과 조화를 이루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그것에 기초한 이론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것이 잘 확립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나는 이것에 대해 더 나아가서 그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와 그에 대한 분석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돌아와서 제가 건너뛴 C.를 선택하겠습니다.

스테파니 이스트먼 (Stephanie Eastman)
이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Rachel Ashley의 최종 편집
테드 힐데브란트 (Ted Hildebrandt) 가 다시 해설함